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12주. 문학속 사건들

3차시. 세태를 과감히 표현하다 2: <절화기담>2

학습목표

1. 세태소설 <절화기담>을 통해 당대를 이해할 수 있다.
2. <절화기담>이 시대 속에서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역사적 사실 - <18~19세기의 서울>

1. 풍속화(1)



신윤복 <유곽쟁운>, 간송미술관 소장
색주가에서 술을 마신 술꾼들이 싸움을 벌이는 장면

🔍 역사적 사실 - <18~19세기의 서울>

1. 풍속화(2)

김홍도, 기방쟁웅(妓房爭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기생집 안팎의 풍경을 그린 그림으로 당시 기생이
술시중을 드는 술집의 풍경으로 추정



흥청망청한 18세기 서울의 술집(출처)

역사적 사실-<18~19세기의 서울>

2. 영조의 '금주령'

- **김약로:** 시골은 술을 금하기가 쉽고 시장의 술은 탁주에 불과합니다. 경성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빛는 술이 거의 백 석에 이르고, 이것으로 치부(致富)합니다. 때때로 엄금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영 조:** 지금은 대궐문에서 지척되는 거리 곳곳까지 모두 주등(酒燈)이 걸리니 저번에 풍원부원군(조현명)이 말한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
- **김약로:** 근래 주등이 대궐문 지척에 퍼진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경성 내외로 말씀 리면 열에 여덟아홉이 술집입니다.
- **영 조:** 때때로 대궐 안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주등이 대단히 많다. 그렇다고 그 점을 민망히 여겨 금주를 실시한다면 삼사(三司)의 아전 놈들이 여항에서 폐단을 일으킬 테니 이것이 난처하구나.
 - -안대회, 『18세기 도시-서울의 술집』에서 발췌

역사적 사실 - <18~19세기의 서울>

3. '모동(종로 3가)'의 술집

“담배사려!” 외치는 소리 끊어졌다 이어지고
 행랑에는 등불 밝혀 골목길이 흰하다
 한가로운 너댓 사람 팔짱끼고 말하네
 ‘밤새 군철이집에 술을 새로 담갔다더군.’

—서명인, 『취사당연화록』, <저녁에 종루 거리를 지나가다 짓다>—

※ '군철이집'

- 18, 19세기 술집 대명사
- 1766년경 종로에 있는 유명한 술집 '군철이집'은 술독이 백여 독이 넘고
 안주로 유명한 기업형 술집 이름으로, 당시 '여자 군철집'과 '남자 군철집'으로 분가
 -안대회, 『18세기 도시-서울의 술집』에서 발췌

역사적 사실-<18~19세기의 서울>

3. '모동(종로 3가)'의 모습

- 18세기 한양 상권에서 가장 번성한 업종의 하나가 바로 '술집'
- 당시 종로는 술집으로 변화한 곳으로 매우 많은 술집이 있었는데, 술맛과 음식맛으로 경쟁하면서 크고 작은 술집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서울의 문화를 만들어 냄

※ 18세기 기록에 따르면 한양성 안에 술집은 수천 호였고 종사자만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한양성 인구 열 명 가운데 한두 명은 술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조선의 국왕 또한 술 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영조는 수차례 금주령을 내려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정조는 이를 포기하고 만다..

작품 <절화기담> 속 서울

1. <절화기담> 본문 중 '서울'

“이때는 바로 늦봄 삼월 보름이었다. 푸른 버드나무 가지에는 꾀꼬리는 벚을 부르고, 붉은 살구꽃 위로는 흰나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곳곳마다 예전 난정에서의 모임을 기억하고 사람들마다 시를 읊조리며 옛사람들의 풍류를 따라 했다. 이에 임금님은 대신들과 여러 신하들을 명하여 궁궐에서 꽃과 버드나무를 감상하며 즐기도록 하였고, 물시계가 한 번 울린 뒤에도 야간 통행을 금하지 않아서, 온 성안의 남녀들이 몹시 즐거워하며 구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생도 두 세 명의 벼들과 함께 흥이 나서 달빛을 받으며 주막에서 술을 마셨는데, 제5교 입구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환히 비추고, 상림원(上林園)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잇달아 연주되고 있었다. 이런 경치를 대하자 이생은 마음이 동하여 순매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다. 이생은 곧 벼들과 헤어져 지름길을 택해 자기 동네로 가서는 길을 돌아 노파를 찾아갔다.”

(<절화기담>, 62-63쪽)

- ※ 18세기 후반 한양에서 '난정수계'를 모방한 축제에 대한 묘사.
- ※ '난정수계'는 중국 동진 때 왕희지가 문인들과 함께 난정에 모여 곡수에 술잔 띄우고 시 지으며 놀았던 축제.
- ※ '난정수계'를 모방한 축제가 봄마다 연례적으로 행해졌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년), 3월 15일 기록에 있다.



작품 <절화기담> 속 서울

2. <절화기담> 본문 중 '서울'

이 날은 바로 사월 초파일이었다. 집집마다 밝힌 등불이 온 마을에 밝게 비추고 수부 소리가 다투어 울렸다. 왕손의 흰 말은 해 저물녘에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놀고, 젊은 남녀들은 서울 거리로 모여들었다. '임금이 즐겁고 신하도 즐거우니 만년토록 영원히 즐거우리로다. 달 밝고 등도 밝으니 천지가 모두 밝구나'하는 구절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생이 벼들을 불러 종소리도 듣고 연등도 구경하며 이리저리 거닐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순매가 생각나서 곧바로 노파를 찾아갔다."

(<절화기담>, 84-85쪽)

※ 4월 '초파일'(연등회): 젊은 남녀들이 한양 거리에 모여들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음

3. 19세기 <절화기담>의 '서울'

- 향락과 축제적 분위기
 -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남녀의 공개적 만남이 허용되는 축제 분위기
 - 18세기 후반 한양의 성안에서 펼쳐지는 난정수계는 남녀가 어울려 만날 수 있고 흥취와 향락을 만끽하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초기 자본주의 도시로 변모-유흥의 공간
 - 당시 한양의 종로통은 곧 시정(市井)공간이며 상업의 발달과 함께 유흥문화가 드러나고 자본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공간
 - 18세기 말 한양은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초기 자본주의 도시로 변해감



<절화기담> 이해 및 감상

<절화기담> 속 서울, 그리고 사랑

1) '자본'이 중심이 되는 유흥 도시 속 물질적 사랑

- 이생과 순매는 '자본(돈)'을 매개로 만남

2) '육체적 욕망'에 기반한 소비적 사랑

- 이생이 순매에 반한 것은 순매가 가진 '아름다움'에 따른 욕정
- 이생은 오직 순매와의 육체적 사랑에 집중

3) 과도기적 사랑 - 가부장중심제에서 탈피하지는 못하는 '순매'

“낭군께서 저를 그리워하고 잊지 않으심을 저도 알고 있었습시다. 비록 목석 같은 마음이라 해도 어찌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낭군께서는 이미 아내가 있고 저에게도 남편이 있습니다.”

--이생과 순매는 9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데, 순매는 작품 속에서 만남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남편'을 들고 있음

QUIZ로 정리하기

1. 다음은 <절화기담>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0, 틀리면 x 하시오.

- ① 19세기 한양의 풍경이나 풍속을 구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순매의 지순한 사랑이 작품에 잘 담겨있다.
- ③ 당대의 풍속이나 세태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 ④ '석천주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남화산인이 소설화하였다
- ⑤ 18세기 종로의 변화가를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진다
- ⑥ 이생과 순매의 사랑 저변에는 '물질(돈)'이 매개돼 있다.
- ⑦ 인간 내면의 욕정의 문제를 잘 드러내었다